

제 13차 대한두경부종양학회

■ 포 스타 ■

1

극도로 빠른진행을 나타낸 갑상선역형성암 1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해부병리학교실*
김 중 규 · 장 희 경*

갑상선 역형성암은 갑상선암의 15%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50세이후에 나타나며 60~70대에 가장 빈발한다.

남녀비는 1.3 : 1 정도이며 피낭을 형성치않고 갑상선 밖으로 널리퍼져 주변조직을 침윤한다. 환자는 보통 통증을 수반한 갑상선장애투와 이로 인해 주변이 눌린 증상을 보인다.

진단시에는 이미 국소림프선과 경부의 연부조직으로 침윤되어있고 폐나 골로 원격전이가 있기도하며 극도로 빠른 진행을하여 예후가 매우 나쁘다. 57세 여자환자로서 3개월간에 갑자기 커져버린 우측갑상선종괴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매우 견고하고 거의 가동성이없이 고정된 양상이었으며 환자는 경부동통과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갑상선전절제술 및 경부곽청술을 실시하였고 술후 경부압박감의 완화가 있었으나 술후 3일부터 우측 측경부가 팽만되며 단단한 종괴가 만져졌으며 호흡곤란 및 애성을 호소하여 술후 8일째 재수술하여 급격히 재성장한 전이성 임파선을 제거하였다.

재수술후 adriamycin, cisplatin... 등을 정주하고 방사선치료도 동시에 실시하였으나 재수술후 2개월에 다시 경부임파선 재발 및 폐전이가 나타나서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권유하였으나 거부하고 퇴원하여 재수술후 3개월에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2

갑상선에 발생한 원발성 악성 림프종 1례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현웅 · 박일석 · 노영수

악성림프종은 림프절 및 림프조직에 존재하는 망상내피 계통의 세포 및 림프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종양으로 갑상선암을 제외한 두경부 비상피성암중 가장 흔하며 주로 경부, 액와부 등의 림프절에의 침범이 많고, 림프절외 부위는 소화기계, 구개편도, 비강 및 부비동 등에서 발생하며 갑상선에 원발성으로 발생하는 림프종은 전체 갑상선 악성종양의 0.3~1.8%로 보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나이든 여성에서 호발하고 림프성 갑상선염과 동반되어 많이 나타난다.

저자들은 최근 55세 여자가 경부종물 및 피로를 주소로 내원, 세침흡인검사상 악성림프종과 전이성 소세포암이 의심되어 갑상선 부분절제술후 조직검사상 악성림프종으로 확진되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의 병합요법을 시행한 증례가 있어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3

국균성 부비동염의 CT 소견과 일측성 부비동 질환과의 감별: 삼악동벽 비후정도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이비인후과학교실*
이범하 · 김의중 · 최우석 · 윤엽
홍남표* · 안희영*